



"남이야 삼승 버선을 신고 못자리를 밟든 말든"

뜻: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,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굳이 신경 쓰거나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무관심 · 타인 · 개인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남	이	야	삼	승	버	선	을	신	고
못	자	리	를	밟	든	말	든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남	이	야	삼	승	버	선	을	신	고
못	자	리	를	밟	든	말	든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ㄴ ㅁ ㅅ] [ㅅ ㅅ] [ㅂ ㅅ ㅁ] [ㅅ ㄱ] [ㅁ ㅈ ㄹ ㄹ] [ㅂ ㅅ] [ㅁ ㅅ]

웹에서 보기

